

# '이리열차타고 익산행' 성료

### 총 11회 조기 매진 기록·7개월 여정 마무리... 전국 각지 여행객 '뜨거운 호응' 역사·교육·문화 여행으로 익산 근대유산 매력 발견·지역 경제 활성화 일조

철도도시 익산의 숨겨진 매력을 찾는 '이리열차타고 익산행'이 전국 여행객의 큰 호응을 얻으며 여정을 마쳤다. 익산시는 올해 생생 국가유산사업 '이리열차타고 익산행'이 지난 4월부터 11회차에 걸쳐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리열차타고 익산행'이 지난 4월부터 11회차에 걸쳐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유산청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역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유산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해 문화 향유의 기회를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2018년 처음 생생 국가유산사업에 선정된 후 6년째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이리열차타고 익산행'은 매회 조기 매진을 기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7개월 동안 서울과 경기, 세종,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5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익산의 주요 근대 유산인 솔리근대역사문화공간과 익산역을 중심으로 역사와 교육, 문화를 아우르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만경강과 옛 춘포역 건물 일대에서는 쓰레기를 주우면서 산책하는 '플로깅'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에게 문화 유산과 자연을 보전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 근대 유산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앞으로도 익산의 문화유산을 활용해 지역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인천강소특구, 탄소중립 협력사업화 설명회

### 2050 온실가스 탄소중립 위한... 어업 산업 선박 배터리 기술 혁신 선보여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군산 강소특구 장민석 단장)와 인천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인천 강소특구 이희관 단장)는 지난 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인천국제환경기술전 행사장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특구간 협력사업화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인천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난 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인천국제환경기술전 행사장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특구간 협력사업화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협력사업화 설명회는 '2050 온실가스 탄소중립'을 위한 해양생태계 보전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주)SK렌터카, (주)SK텔레콤, (주)오트앤 그리고 군산 강소특구기업 (주)에스엔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어업 산업의 선박 배터리 기술 혁신'을 선보였다.

용 제조의 선두주자인 (주)에스엔이 개발한 최신 배터리 기술을 소개하였고, SK텔레콤의 실시간 배터리 스마트 모니터링 서비스와 함께 선박 운영자들이 기존 납산 배터리에서 더 진보된 리튬이온 배터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SK렌터카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플랫폼을 운영하며, 오트앤은 판매 및 애프터서비스를 담당할 예정이다.

하기 위한 사업이며, 본 행사는 군산-인천강소특구간 탄소중립을 위한 그동안의 협력의 결과 중 하나이며, 올 5월말에 공동으로 몽골 실증화사업을 통해 에너지저장형 시스템으로 협력한 바가 있다.

이전 행사는 리튬이온 배터리 재사

기존의 어민들의 선박용 엔진을 덜 사용하게 함으로써 해양환경을 개선

향후 지속적으로 특구간 협력사업화 아이템을 발굴하고 협력함으로써 친환경 생태계를 조성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는데 군산-인천 강소특구가 모범이 되는 사례를 만들어 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 군산대-스페인 해양연구소, 상호 연구 협력

### MOU 체결·패류 질병 관련 세미나 개최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는 지난달 30일 국립군산대학교에서 스페인 국립연구위원회 소속 해양연구소와 연구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유럽의 패류질병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하고 분자 수준의 질병 진단기술개발 현황과 병원체 및 숙주에 대한 유전체 분석을 통한 질병 통합 관리에 대해 소개했다.

스페인 해양연구소의 소장 Beatriz Novoa와 Antonio Figueras 교수는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을 예방해, 해양바이오 특성화대학(학장 박경일)과의 연구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현재 군산대학교에서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외해 수산양식의 환경적·양식학적 성과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장호 총장은 현재 군산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해양·수산 관련 대형 국책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해양·수산 강국인 스페인의 지속적인 연구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국립군산대학교 해양·바이오 특성화대학과 스페인 국립연구위원회 해양연구소는 연구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진 및 연구 자료의 교환, 공동연구 발굴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해양바이오특성화대학 박경일 학장 주관으로 치러진 '유럽의 패류 질병'에 관한 발표에서 Beatriz Novoa 교수와 Antonio Figueras 교수는 유럽의 패류 양식 및 질병 연구 현황을 설명

이번 스페인 연구진의 군산대 방문을 추진한 박경일 학장은 "세계 수산양식업 대부분이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군산대학교가 수산질병 연구 및 국제 교류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

### 진화대·감시원 118명 투입... 내달 15일까지 운영

익산시가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취약지와 인접지를 수시로 순찰하는 등 산불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가을철 '산불발생 0건 달성'에 나선다.

익산시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인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익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산불 비상 체계를 유지한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지휘차, 진화차, 무전기, 등짐 펌프, 갈퀴 등 산불장비의 정비와 보강을 완료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산불진화 임차행기를 통한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7명과 산불감시원 51명을 선발해 총 118명이 산불

영농부산물 파쇄를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춘포 원쌍정마을 주민 숙원 해소

### 12월 준공 목표로 1.7km 구간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익산시가 춘포면 원쌍정마을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해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한다.

인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시는 도비 1억5,100만원, 시비 3억 5,300만원, 전북에너지서비스 3억3,600만원 등 총사업비 8억4,000만원을 투

공사 구간은 1.7km로 원쌍정마을을 약 50가구의 난방비 절감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 대야배수분구 하수도

#### 정비 중점관리지역 선정

군산시는 대야면 지경리, 산월리 일원이 2024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되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대야시장이 위치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매해 침수 피해가 일어났다.

올해 7월에도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시는 시간 대야면 일대의 침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배수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 강구를 해왔다.

하지만 시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부담이 컸다.

이런 가운데 대야면 지경리와 산월리가 이번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지정됐고, 국·도비 394억 원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시에서는 총사업비 492억원(국·도비 394억원 포함)을 투입해 우수관로 개량 및 신설 연장 구간 총 4.2km를 비롯해 빗물펌프장 3개소 시설등을 통해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군산시는 2025년에 하수도정비대책 수립 완료 후 202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2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5~7월 '불용농약

#### 집중 수집의 날' 운영

익산시가 방치된 불용농약을 수집해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에 힘쓴다.

익산시는 농가에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 또는 보관 중인 불용농약을 본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7일까지 '불용농약 집중 수집의 날'을 운영한다.

불용농약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농약 수거함에 수시로 배출하거나, 배출량이 많은 경우 연 2회 운영하는 '불용농약 집중 수집의 날'에 처리할 수 있다.

불용농약 처리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청소자원과(063-859-5479)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유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